



노인성 탈모

더모 헤어플란트 미지예피부과 정진욱 원장

약물치료로 개선 가능... 심할땐 모발이식

한국인들의 평균 수명이 81.4세로 나타났다. 10년 전보다 4.4세 많아진 것이며, 꿈의 100세 시대가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

인생을 향유할 수 있는 시간이 예전보다 길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오래 살수 있다고 해서 무작정 좋아할 수만은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장수에 따른 위험도 또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년은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즐거움이 될 수도 있지만,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

일반적인 은퇴 시기인 50~60세 이후 남은 수명은 20~30년으로 추정된다. 은퇴 이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생을 즐길 수 건강이 있어야 하며, 적절한 생활비도 있어야 한다. 따라서 여생이 길어지는 현실에 비춰볼 때 최대한 은퇴시기를 늦추는 것이 행복한 인생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건강하고 활동적인 젊은 노인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꾸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하며, 겉으로 보이는 모습 또한 중요하다.

▷노화에 따른 피부와 모발
노화에 따라 피부는 얇아지며, 창백해지고 쉽게 멍이 생기는 생리적 변화가 나타난다. 햇빛 노출부위에는 검버섯이나 노인성 흑자 같은 점이 나타나며, 주름이 깊어진다. 나이와 함께 모구(털뿌리)의 멜라닌 세포는 점차 소실되어 40대 후반이 되면 인구의 절반 이상이 흰머리가 생기게 된다. 또한 모발의 직경이 가늘어지고 성장속도도 느려진다.

앞머리 양측의 모발경계선(헤어라인)은 사춘기 이후부터 뒤로 밀려나기 시작하는데 60대가 되면 측두부의 모발 손실과 후두부의 모발손실이 관찰된다.

모발과 피부는 여러 가지 생리 기능을 가진 보호막이면서 동시에 타인으로부터 미용적 호감을 얻는데 중요한 기관이다. 노화된 피부는 외견상 보이는 변화와 함께 여러 가지 피부의 기능적 장애를 동반하고 있다.

한편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피부를 가지고 있는 노인은 삶에 더 만족감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피부가 가진 생리적 기능에 버금



더모 헤어플란트 미지예피부과 정진욱 원장이 60대 중반 남성에게 노인성 탈모로 고민하는 60대 중반의 남성에게 모발이식을 하고 있다.

60대부터 모발 손실... 머리숱 줄어들고 가늘어져 비절개 수술, 4시간동안 4000모 이식... 당일 활동

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심한 노화의 흔적은 삶의 활력에 지대한 영향을 주어 심한 경우 우울증에 빠지기도 한다. 따라서 피부노화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젊게 보이는 외모는 스스로 만족감을 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성 탈모증의 치료
머리숱이 줄어들고 가늘어지는 노인성 탈모는 약물치료로도 어느 정도 억제 가능하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탈모 개선에 도움이 되는 약물을 매일 바르는 것이다. 미녹시딜이라는 약물이 가장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약물은 하루 1~2번 탈모가 일어나는 두피에 발라주는 방법이다. 비슷한 효과를 내는 약물로 트레티노인, 카펠라이드가 있으며 이들 약물을 함께 병용해서 사용함으로써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효과가 잘 알려진 먹는 발모제는 과거부터 노령연구에 흔한 전립선비

대증의 치료에 사용되었던 약물인데, 이 약물을 사용하던 사람들에서 발모 효과가 발견돼 현재는 탈모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 먹는 발모제인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는 하루에 한 알씩 복용하는 것인데, 매우 안전한 약물로 특별한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노인성 탈모에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환자들에서 성적 기능의 감소를 호소하는 부작용이 있어서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 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먹는 약물은 사용하는 동안 효과가 있지만 약물을 끊으면 몇 달 사이에 효과가 없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꾸준한 복용이 필요하다.

약물복용이 어렵거나 효과가 미흡한 경우는 노인성 탈모 수술로 모발이식술을 통해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노인성 탈모의 모발이식술은 자기의 모발 중 탈모가 일어나지 않고 건강한 뒤통수 부위의 남아있는

모발을 채취해서 탈모가 있는 부분에 옮겨 심어주는 수술이다.

국소 마취하에서 시술되며, 보통 2000모에서 4000모를 이식하는데 3~4시간 정도만 투자하면 5~10년 정도는 젊은 모습을 가질 수 있다. 시술 후 회복기간은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시술 당일에도 근무가 가능할 수 있으며, 목욕은 3일째 가능하고 수영은 7일 후 가능하다.

▷노인성 탈모의 모발이식수술 방법

심어줄 모발을 채취하는 방법에 따라서 절개식과 비절개식으로 나누어지는데, 시술방법의 선택은 모발과 두피의 상태 그리고 탈모된 정도와 부위에 따라서 시술 담당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하다.

비절개식은 절개식에 비해 상처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2000모 이상을 이식할 때는 절개식을 선호하며 절개식은 높은 생존율이 특징이다.

노인성 탈모는 약물로 억제와 개선이 가능하며, 심한 경우는 모발이식 수술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수술 후 젊게 보이는 외모는 젊게 보일 뿐 아니라 더 활동적으로 보여 자기의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정리=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병원 제왕절개분만 적정성 1등급

심평원, 739개 기관 대상 평가
광주기독병원, 3년 연속 최우수

을 유도하는 의료진의 부단한 노력이 있어 가능했고, 전남대병원의 의료수준이 전국 최고임을 입증하게 됐다.

광주기독병원은 2011년, 2012년 평가에 2013년까지 3년 연속 이어진 제왕절개분만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으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에서 광주기독병원은 고위험 산모 중 제왕절개분만이 예상되는 비율(예측률 53%) 보다 실제로 시행한 제왕절개분만 비율(실제율 38.9%)이 훨씬 더 낮았으며, 전체 제왕절개 분만 중 초산 분만비율도 낮았다.

심평원은 최근 전국 739개 기관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실시한 2013년 제왕절개분만 적정성 평가 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전남대병원·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 등 12개 병원이 ▲종합병원은 광주기독병원 등 14개 병원이 1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전남대병원은 특히 고위험 산모 중 제왕절개분만이 예상되는 비율(예측률 63.7%) 보다 실제로 시행한 제왕절개분만 비율(실제율 54.2%)이 더 낮고, 전체 제왕절개 분만 중 초산 분만비율도 낮은 점 등이 높게 평가돼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고위험 산모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남대병원이 제왕절개분만을 줄이고 자연분만

박병란 광주기독병원장은 “광주기독병원 모든 의료진이 한층 환자중심병원을 추구하며, 고수의 진료보다는 환자중심 진료에 초점을 맞춘 결과”라며 “앞으로도 광주기독병원은 환자안전에 최우선으로 하는 지역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했다.

한편 전국에서 제왕절개분만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시로 전국 평균보다 8.3%p 낮은 28.6%를 기록했으며,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으로 41.7%에 달해 지역간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병원, 대한심장학회 최다논문 발표

정명호 교수팀, 11년 연속



고감도 C-반응 단백질의 예후에 관한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해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고감도 C-반응 단백질이란 혈액 속 염증인자를 말하며 심혈관 질환 예후를 예측하는 지표이다.

전남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정명호(사진) 교수팀이 대한심장학회에서 11년 연속 연구논문 최다 발표 기록을 세웠다.

교수·간호사·전공의·연구원 등 총 45명으로 구성된 정 교수팀은 최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57차 대한심장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구연 35편, 구연포스터 7편, 포스터 31편, 공동연구 40편 등 총 113편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이번 학회 발표논문 총 730편 중 무려 14%를 차지하는 놀라운 연구결과로 11년 연속 최다발표의 영예를 안았다.

정 교수는 또 이번 학회에서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술 받은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체질량지수에 따른

정 교수의 이번 논문은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 중 비만을 동반하고 고감도 C-반응 단백질이 높은 환자는 경과가 좋지 않기에 더욱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새로운 치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대한심장학회 50주년 기념연구사업인 한국인 심근경색증 등록 연구 결과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초록장애인센터에 농협상품권 전달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최상준)는 은행연합회에서 후원하는 '은행사랑나눔네트워크' 일환으로 은행연합회 및 지사에서 추천한 사회복지시설에 농협상품권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으로 초록장애인보호센터에 300만원 상당의 농협상품권을 전달했다.

이번 프로그램의 총 지원 시설은 광주·전남지역 8곳에 총 1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금매”

1층상가 - 25평

- ▶ 정문코너, 편의점 임대 중 (보3천만원에 월 125만원)
- ▶ 시세 2억 5,000만원 정도
- ▶ 급매 1억 7,500만원

13층 - 오피스텔

- ▶ 53평, 주거겸 사무실
- ▶ 코너, 양동/하천쪽
- ▶ 시세 2억 5,000만원 정도
- ▶ 급매 1억 5,000만원

10층 - 오피스텔

- ▶ 29평, 주거겸 사무실
- ▶ 하천쪽, 전망좋은
- ▶ 시세 1억원 정도
- ▶ 급매 6,100만원

⇒주인직매함
H.010-4667-9300

경매투자

- ▶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
- ▶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 ▶ 단독/공동투자 가능
- ▶ 실전사례 중심교육
- ▶ 교육비, 1200만원
- ▶ 단, 상담후 본사 결정

(주)오천경매 H.010-3605-5000